

제18회 일본연구소 연구집담회

일시: 2010년 10월 13일(수) 15:00~17:00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04호

발표: '강좌파' 네트워크와 사회과학/민족해방/민주혁명'의 자장
조관자(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 발표내용

일본의 학지와 관련한 테마 연구의 일환으로 강좌파와 일본의 낭만파를 설정. 80년대 한국의 대학에서 접했던 사상운동의 역사와 닮은 점이 많아서 흥미를 가졌고 현재는 전체그림에 접근하기 위해 탐색하는 단계이다. 내재된 문제의식은 민족해방/민주혁명이 80년대 정점을 이루고, 90년대에는 디아스포라/경계넘기는 아이덴티티를 해체하는 흐름으로 갔는데 80년대의 문제의식이 이제 없어진 것인가.

강좌-2단계혁명론, 감성적 열성분자

노농-1단계혁명론, 이론적 과격파, 실천에서는 리버럴리스트

강좌와 노농 간의 논쟁은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역사의 재인식, 사회과학/혁명이론과 실천운동을 제시하는 과제로서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 자체가 세계관의 형성, 생활세계에 대한 전망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해 왔다. '강좌'는 맑스주의 토대로 문화운동이나 도시사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적'인 틀을 견지했던 연구였다.

강좌파와 노농파의 영향력은 제국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있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강좌파는 전시체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의 정책 수행을 위한 여구 인력으로 전환되었다. 전후에는 강좌파 담론은 제국의 아시아 지배를 정당화한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행해졌지만 패전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등에 업고 신강좌파의 부활로 이어졌다.

◎ 질의와 토론

-전후개혁에 있어서 강좌파의 인식은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일본인식 제공했음. 만주의 경우는 통제경제와 관치경제는 혁신관료들(기시노부스케)에게서 극우파와 계획경제 주장하는 강좌파의 전향파가 합성되어서 만주와 전후 경제에서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의 이론적 사상적 근거 제공했음.

-강좌/노농 논쟁의 문맥과 의미를 한국 혹은 동아시아적 함의를 포착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강좌파가 지식의 권력을 장악한 것은 무엇보다 코민테른이라는 정치적 권위가 배후에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코민테른이라는 존재가 배제되었을 경우 강좌/노농의 논쟁의 구도가 어떠했을까를 가정해보는 것이 좀 더 입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 노농파의 입장에서 일본 자본주의 이야기한 것은 자료가 적다. 노농파는 주로 혁명이라기 보다는 경제분석의 정합성 논리성에 주목하는 쪽으로 나간다.

: 코민테른의 동아시아 혁명의 논의가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의 논리와 동전의 양면

을 이루고 있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실천적인 함의를 지닌 연구가 될 것이다.

: 힘들겠지만 일본의 논쟁 상황과 전진의 논쟁 함께 봐야 의미가 깊을 것이다.

: 강좌파는 천황제를 봉건적 유제로 파악하고 노농파는 과도기적 체제로 보는데 일본에서는 천황제라는 것이 봉건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는데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천황제는 정치권력의 문제, 봉건성은 토지소유의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현재 봉건성은 낙후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동아시아 지역에서 맑스주의가 이동할 때는 지역의 맥락에 따라서 변형과 굴절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양상과 내용이 궁금하다.

-‘강좌파’는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호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동아시아의 맑스주의는 일본을 발신자로 해서 퍼져나가는 것인가?

-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다. 만주에서 20년대 이미 맑스주의 조직이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맑스주의가 들어오고 있었다고 인식해야 한다. 트랜스내셔널한 측면에서 조명이 요구된다.

: 네트워크, 혹은 트랜스내셔널한 측면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논의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 **강좌파는 동아시아적 사상사에서의 상징적 기호이다.**

내재적 발전론도 강좌파의 맥락에 있다.

노농파는 자본주의가 외래적인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 비유럽/동아시아/맥락에서 자본주의와 혁명의 문제를 봉건성의 문제를 핵심으로 삼은 것이 강좌파/민족을 주체로 삼기 때문에 콜로니얼 포스트 콜로니얼 맥락에서 혁명적 함의를 갖게 된다.